

인간과 음식의 관계로 풀어보는 인류문명사



소고기 구이에 구운감자, 야채를 곁들인 영국 '선데이 로스트'.



홍합·새우·낙지를 넣어 야외 장작불에 끓이는 '해물 파에야'.



삶은 감자에 케일·양배추를 넣고 우유와 섞은 아일랜드 '콜캐넌'.



자유의 상징이 된 세계적인 청량음료 코카콜라.



양고기와 감자 등을 주재료로 오랫동안 끓인 스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푸드 오디세이'
빌 프라이스 지음·이재황 옮김

“국가의 운명은 국민들의 음식 선택에 달려 있다.”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인 장 앙텔름 브리아사바랭(1755~1826)의 말이다. 브리아사바랭은 법관보다 미식평론가로 더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저서 '미식예찬'은 “식도락 에세이라는 장르의 모든 것을 발견한 것”이라 평할 정도로 미식 담론의 바이블이 되었다. 브리아사바랭이 지정한 대로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음식 선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음식은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김치, 인도의 향신료, 독일의 소시지, 미국의 햄버거, 스페인 파에야 등은 그 같은 예다. 음식을 주제로 한 '떡방', '국방' 텔레비전 트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 살기도 한다. 일상에서 '먹는 행위'는 간단한 문제를 넘어 신성한 그 무엇인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음식은 생존의 필수품이자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마트나 슈퍼마켓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식료품들이 진열돼 있다.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삶의 방식에는 상호 작용이라는 매개가

빵·고기·옥수수·감자·향신료 등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50가지 음식 집중 탐구

작용한다. 다시 말해 섭취하는 음식과 일상의 문화는 때때로 떼어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과연 음식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을까. 인간과 음식의 관계로 인류문명사를 풀어낸 책이 발간됐다. 영국의 작가이자 여행가인 빌 프라이스가 펴낸 '푸드 오디세이'는 한 권으로 맛있게 읽는 음식 문화사이다. 저자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음식 이야기를 풀어낸다. 먼 옛날 야생 동물이나 물고기들을 어떻게 잡아 요리해 먹었는지, 야생 동물을 어떻게 사육하고 재배했는지 들여다본다. 후대로 내려올수록 특정 음식과 역사적 사건의 관련성이 더 깊어진다. 빵은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등장해 점차 확산된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를 지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 변하지 않고 오래가기 때문이라는데, 현대의 군사 작전이나 오랜 기간의 항해 때 건빵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양이 사육되면서 자본주의의 서막이 오른다. 오늘날 세계에는 10억 마리 이상의 양이 살고 있는데 고기뿐 아니라 털과 젖은 유용하다. 서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처음 가족으로 사육됐다. 18세기 스코틀랜드에서는 양 사육을 위해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우리나라 제사상에도 오르는 대추는 7000년 전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재배됐다. 오래 저장 가능해 건조 지대 전역으로 확산됐다. 사막 교역로를 개척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음식이 된 셈이다.

함께 모여 먹는 문화를 탄생하게 한 데 일조한 음식은 맥주다. 기원전 2000년 전 수메르 지역에서 탄생한 맥주는 파라오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급료로 지급되기도 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옥수수는 페루의 잉카제국이나 중앙아메리카 제국 건설의 주춧돌이었다.

곡수는 기원전 2000년 무렵 중국에서 탄생한 음식으로 추정한다. 과거에는 곡수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져 동쪽으로 전파됐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의 유적지 라자에서 발굴된 유적에서 가늘고 긴 가닥들이 출토된 후로 중국 기원설을 믿는 편이다.

이밖에 부끄러운 노예 무역의 상징 '설탕', 카스피해 철갑상어의 남획을 불러왔던 '캐비아', 자유의 상징이 된 세계의 청량음료 '코카콜라', 세계 무역과 음료 시장을 재편했던 '홍차', 기아에서 인류를 구한 '감자' 등 50가지 음식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처럼 저자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음식물에 대한 지적 탐구를 펼친다. 책을 읽고 나면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먹어온 음식의 역사와 같다"는 결론에 이른다.

〈패피스토리·2만3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김양식 외 지음 '조선의 멋진 신세계'

홍길동의 후예들은 왜 울도국을 버렸을까?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이 상상한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있다.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다는 의미다. 이 헬조선은 대한민국이 조선으로 불리던 시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느 시대건 저마다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듯이, 전통시대를 살았던 조상들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다.

조선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던 자들의 궤적을 추적한 책이 나왔다. 김양식 충북연구원 김양식 소장 등 관련 전문가 6인이 펴낸 '조선의 멋진 신세계'는 일곱 가지 관점으로 그려낸 전통시대의 유토피아다. 더 나은 삶을 바랐던 이들의 행적을 통해 백성이 아닌 민주시민으로서 오늘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게 한다. 책에는 홍길동이 이끌었던 의적 활빈당부터, 조선 후기 한반도에 '사학'으로 첫 선을 보인 천주교, 미륵신앙과 '정감록', 동학사상 등에서 파생된 모두 일곱 가지 유토피아를 소개한다.

책은 역사연구소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명강연을 모은 '역사서당' 시리즈 첫 번째로, 학문의 영역에 머물던 역사를 대중의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단편적인 사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역사의 숨겨진 이면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들은 역사는 늘 우리 삶 속에 있으며 삶의 이해와 미래를 보는 큰 시야를 길러 준다고 입을 모은다. 〈서해문집·1만49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문호 '박문호 박사의 뇌 과학공부'

우주 현상으로 생명과 생각의 출현을 추적 정리한 '뇌, 생각의 출현', 뇌의 기능과 작용을 토대로 의식과 행동을 연구한 '그림으로 읽는 뇌과학의 모든 것'에 이어 뇌 작용을 감각, 지각, 기억, 꿈 중심으로 설명한 책이 출간됐다.

'박문호 박사의 뇌 과학공부'는 최근의 뇌과학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반영하면서 뇌 기능의 해부학적 매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뇌과학 공부 방법론에서 의식과 기억에 관한 철학적 수준의 논의까지 뇌 공부의 모든 것을 밀도있게 담았다.

특히 대뇌피질 작용의 핵심인 감각입력이 처리돼 지각이 형성되는 과정, 해마에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책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240컷에 달하는 일러스트다. 그림 한 장 한 장마다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저자가 3년에 걸쳐 직접 뇌의 구조와 신경계의 흐름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독창적으로 도식화해 정리해낸 것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기억과 꿈을 다루는 후반부 부분이다. 기억이 어떻게 생성되고 또는 강화, 소멸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세밀하게 설명한다. 장기기억, 단기기억, 일화기억, 절차기억, 서술기억, 암묵기억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각각의 기억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다룬다. 〈김영사·4만3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정희·이호형 공저 '꿈을 읽다'

'꿈을 읽다'는 흔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해몽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꿈에 대한 복잡한 이론만 잔뜩 늘어놓은 어려운 심리학 같은 책도 아니다. 꿈을 궁금해 하는 생활인의 눈높이에 맞춰 꿈에 대한 실재를 우리가 두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심리 가이드라고 할 수 있다.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저자 김정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해준 사례들로 구체적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꿈을 읽는 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

꿈은 그 본모습을 잘 모른 채 바라보면, 아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이해하려면 도저히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꿈에 나오는 '이미지 언어'로 꿈을 이해하고, 꿈의 기본적인 틀을 안다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다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꿈을 읽다'는 그 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바로 그 꿈을 읽는 방법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은 진짜 나의 모습일까?' 의식 속의 나는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의식의 나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단 한 번이라도 가져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라.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자신의 꿈을 읽는 것이다. 꿈을 읽으면, 알 수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혹은 가끔씩 찾아오는 예지몽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으며, 또 심리적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은 그것에서 벗어날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 〈책읽는 귀족·1만5000원〉 /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